

체험 수기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너희가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0)

저는 개인병원 신경정신과에 근무하면서 집에서 방치된 환자들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던 차에 가톨릭대학교에서 가정간호과정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1년간 수료하고, 2002년 9월부터 옥수동 본당과 연계하여 가정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잠시 감실 앞에 앉아서 시작기도를 바칠 때 떠오르는 성서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이 있거나, 힘이 들 때 용기와 위안을 줍니다.

가톨릭의료인의 이념인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는 데 있다.’는 말씀도 때로는 흐트러지는 제 자세를 가다듬게 해 주고 있



이 영 희(요셉피나)
가정전문 간호사(옥수동)

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신스테파노 신부님과 클레멘스 수녀님, 느헤미야 수녀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하마태오 사목회장님, 박토마스 사회분과장님, 의료사도회, 빈첸시오, 각 구역 반장, 레지오 단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으로 환자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빈첸시오에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가난한 환자와 독거 노인에게 방문선교를 하고 있으며, 가정간호 진료비, 의료용품비, 약대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사도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요일별로 나누어 가정간호사와 환자를 방문하여 영적기도와 묵주기도를 드리고, 환자의 약을 타다 드리기도 하며, 응급환자에게는 차량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원한 독거 노인의 간병인 역할도 하고 지속적인 기도, 사별가정 전화방문을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환자는 약 45명으로 대부분 가난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입니다.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 쪽방에서 홀로 사시는 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 등, 주거 환경은 참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하고 돈도 없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돌보는 분 중에 자궁암에 걸린 한 자매님(68세)이 있었는데 암이 직장까지 전이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곁에서 기도하고 손잡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은 저에게 “빨리 죽는 약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며, 짜증을 많이 내셨습니다.

저와 일하는 자원 봉사자와 수녀님 그리고 신부님이 일치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분을 방문하였더니 차츰 저희들의 사랑 덕분인지 그분의 증세는 나아졌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증세가 좋아지면서 마음도 즐거워하며 면역증강 주사를 일주일에 3번씩 맞으면서도 처음 주사를 맞는 것처럼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요즘은 미사도 다니시고 본당 모임인 안나회도 다니고 계십니다.

1년 동안 돌보아 드렸는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제게 전기담뱃 2개를 사주셨습니다. 극구 사양하였으나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전해 달라고 하시기에, 불도 때지 않고 지내고 있는 독거노인 두 분이 생각나서 그분들에게 선물로 전해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을 하시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더 기뻐했습니다.

그 외에도 쌀이 많은 독거노인은 쌀이 없는 사람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김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김치를 나누어 주며, 서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힘은 들고 몸은
피곤하지만,
제가 돌보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사랑을 전하면서, 그분들 사이에서 더 큰 사랑이 오가도록 다리를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70세 독거노인 할아버지 한 분은,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으로 수술하셨으나 여러 번 재발하여 지금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화장실만 겨우 가시는 분인데 옥수복지회관에 연계하여 반찬 지원과, 본당에서는 특별 지원을 해 드리고, 봉사자와 함께 약도 타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고 해서 더 힘들고 고통 받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신자는 아니지만 방문 마침기도로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주의기도 한번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 사목회장님의 도움으로 방문 교리를 받으면서 열심히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힘은 들고 몸은 피곤하지만, 제가 돌보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며,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 했던가, 매순간 사랑으로 돌보았는가 등을 항상 되돌아 봅니다. 주님은 저희 가정간호사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아가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본당연계 가정간호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힘없고 병들고 고통 받는 모든 환자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느님이 원하는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